



## 아프가니스탄

# 국가 재건의 중대 기로에 놓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작년 12월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수반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23년간의 내전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카르자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을 포함한 주요 지원국들에게 자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사실상 각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군벌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

### 카르자이, 과도정부 수반으로 재선출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13일 전통 부족회의인 로야 지르가(Loya Jirga)를 통해 2년 간 아프가니스탄을 이끌어 갈 과도정부의 수반에 다시 선출되었다. 로야 지르가는 파슈툰, 타지크, 하자라, 우즈베크 등 아프가니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종족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함으로써 종족간의 불화와 갈등을 없애고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이번 회의는 약 30년만에 다시 개최된 것이다. 이 회의의 투표 결과 카르자이가 총 1,575표 중 1,295표를 획득하며 과도정부 수반에 지명됨으로써 보다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수반 선출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 일정이 변경되고, 국민회의 및 내각의 구성과 관련하여 군벌간에 다툼이 계속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적 배경이 없는 카르자이의 국정 장악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여, 향후 권력을 잡기 위한 군벌간의 내전이 심화될 경우 어렵게 재개된 국제사회의 원조도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제사회, 재건자금 지원 약속

UN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하여 향후 30개월 동안 50억 달러가 소요되고, 향후 10년 간 국가재건 비용으로 총 150억

<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별 지원의사 표명 내역

국가 및 국제기구	지원의사 표명내역
유럽연합	10억 유로(금년 중 2억 유로)
세계은행	5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5억 달러
일본	5억 달러
미국	2.96억 달러
이란	5.6억 달러
영국	2.88억 달러
독일	3.6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2억 달러
한국	4,500만 달러
중국	1.5억 달러
캐나다	6,250만 달러
파키스탄	1억 달러
인도	1억 달러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 카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실상 균벌의 수중에 있어, 중앙정부는 세수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국가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해외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막대한 재건비용 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월 동경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 주요 원조국과 국제기구들은 5년 동안 총 4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중 금년내 지원기로 약속한 금액만도 약 18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번 원조에서는 중점 지원분야로 행정기구 설립 및 행정관리능력 개선, 교육 및 보건 위생, 도로 및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금융시스템 구축 등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약 7개월분의 체불임금 지급이 재

개되고, 3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6만여 명의 농민들도 농사용 종자를 공급받았고, 면적 2,400만 m<sup>2</sup>의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내 제공기로 약속된 원조자금 중 상당액의 지원이 미루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유입된 자금은 대략 9,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원조 제공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금융시스템 미비와 원조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수반으로 재선출된 카르자이의 정국 운영능력이 원조자금의 본격 유입 여부를 결정짓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

#### 국내경제 재건 노력 본격화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중 하나로 국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재구축<sup>1)</sup>이 지적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중앙은행은 통화조절 기능을 상실한 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통화발행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내에서는 크게 3종류의 아프가니貨<sup>2)</sup>가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여러 종류의 아프간 화폐와 미 달러貨 이외에도 파키스탄 루피貨가 대체통화로 거래되는 등 통화질서가 극히 문란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향후 중앙은행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 및 유통시키기 위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상당 부분을 매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함은 물론 각 화폐와의 교환비율 결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항공운송 산업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1월 UN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도록 탈레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금지 조치를 내린 후, 아프가니스탄의 항공운송 산업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러나 동 제재조치가 금년 1월 15일 해제되면서 관련산업이 회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는 아프가니스탄의 항공운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탈레반 집권기간 동안의 아프간 영공 사용료 미지급액 2,000만 달러를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관제 및 통신 시설 복구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예정이다. 향후 항공운송 산업이 정상화되면, 공항 및 영공 이용료 수입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안정된 세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운송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sup>3)</sup>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동 사업은 길이 85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연간 300억 m<sup>3</sup>의 가스를 운송하는 사업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은 파이프라인 건설 기간 중 고용창출은 물론 완공 이후 사용료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초석을 쌓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아프가니스탄이 국가 재건의 기회를 맞기 위해서는 군벌간의 내전 종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蔡 祥 珍】

1) 여기에는 통화발행, 통화관리정책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 위조통화 및 북부 군벌의 한 사람인 도스툼(Dostum) 장군이 발행한 통화 등 모두 3가지 종류임.  
 3) 과거 탈레반 정권 시절부터 동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9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음.